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송기도

4·11총선에서 주인이 되는 법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박원순 시민사회대표가 민주당의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를 모두 이기고 서울 시장에 당선된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지원이 있었지만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교수를 통해 표출된 민심은 기존 정당에 대한 커다란 불신이었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번 제 19대 총선에 어떤 후보들을 내놓을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후보들의 도덕성, 정체성을 강조하고 시스템 공천, 모바일 투표 등 공천개혁을 약속한 정당들이 정말 말 그대로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을 공천할 것인지 궁금했다.

3·2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각 당의 비례대표후보자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거의 2개월에 가까운 힘겨운 공천심사를 마무리하고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은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공은 유권자 손으로 넘어왔다.

'정당은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라고 할 만큼 국민과 국가의 연결고리인 정당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당정치는 정당이라는 정치세력이 해 놓은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다. 자신들의 업적과 과오를 모두 늘어놓고 겸허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게 도리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정당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고, 개별적으로는 지난 4년간 국회의원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있다. 그렇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다시 말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쉽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주인이 될 수 있다. 4·11일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면 된다. 그래야 4년이 편하다. 좋은 예인지 확실치 않지만 2년 전 한참 잘나가던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MBC 인사와 관련해 비사를 털어놓았다.

김재철 MBC사장이 "큰집에 불려가서 쪼인트 까진 후 확실히 좌파를 인사조치했다"라고 폭로한 것이다. 진실보도가 무엇이고 기자정신은 무엇인지 또 국민의 알 권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깡그리 무시돼 버렸다. 큰집은 김사장의 쪼인트를 까며 누가 주인(임명권자)인지 확실히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김사장은 주인에게 절대복종하는 '충견'이 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인들이 유권자 무서운 줄 알도록 해야 한다. 선거 때 가장 힘들어 하는 의원이 어느 지역 의원일까? 두말할 것 없이 서울과 수도권에 출마하는 의원들이다. 소위 여야의 당선자가 수시로 바뀌고 또 당락이 수백 표에 의해 결정되는 곳이다. 따라서 그들은 변덕스러운 유권자의 눈치를 수시로 살필 수밖에 없다. 아니 4년 내내 주인인 유권자의 '이쁨'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반면 아직도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영남과 호남의 정치인들은 어떤가? 이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는데 누구 말을 듣겠는가? 이들이 충성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은 지역 유권자가 아니라 공천을 주는 사람이다. 다만 지역주민의 눈치를 보는 척 할 뿐이다. 그러니 유권자의 말을 제대로 듣겠는가?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가르쳐주어야 한다. 투표장에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실히 알게 해주어야 한다. 붓뚜껑으로 투표지에 꽉 힘을 주어서 투표를 해야 한다.

30여 년간 많이도 해먹었다. 그리고 정치는 엉망이 됐다. 이제 판을 바꾸자. 자신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신민(臣民)이 아닌 시민(市民)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4년 동안 노예처럼 끌려다녀야 한다.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다. 한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 수준과 같다. 〈전북대교수·전 콜롬비아대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사랑 칼럼

거룩한 희생들 가슴 깊이 새기자

장만채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며, 개인적인 삶이 좋은 삶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각자 열심히 그리고 여럿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현답(賢答)을 기대하며 우문(愚問)을 던져 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개인적 삶과 여럿이 함께하는 나라사랑의 길에 얼마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잊은 나라에 미래는 없고, 호국보훈이 실천되지 않은 민족에게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과거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현재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개인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모든 개인이 자신의 길을 충실하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나라사랑의 길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며, 꿈과 사랑을 품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준비하는 열정적인 개인, 그 길이 바로 나라사랑의 길입니다.

둘째로는 배려와 존중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인정(認定)하고 칭찬하면서 이웃으로부터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개인, 이 길이 바로 나라사랑의 길입니다. 유학 중의 학생들이 전쟁이 일어난 조국을 구하러 국가로 돌아가는 민족과 자기만 살겠다고 더 멀리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민족의 이야기는 유명한 유태인의 역사입니다. 개인으로의 나만 아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으며, 오래도록 존속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참여는 성취나 등위에 상관없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끝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는 사회와 국가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 봉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헌신적인 개인, 그 길이 바로 나라사랑의 길입니다. 오늘의 나는 언제나 홀로 된 개인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얻어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덕임을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되어 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보면 지나온 과거사는 기억으로 우리 의식 속에 축적됩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사가 기억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사를 자신의 의지로 소화함으로써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과거사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낳았고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는 것이니 과거 선조들의 위업이 바로 미래를 열매 맺게 하는 근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분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이며 최선의 보훈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나답게 살면서 사회 구성원이 상처받지 않고 활기차게 기를 펴고 살 수 있기를 염원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선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깨어 있는 맑은 정신으로 나라사랑의 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그 나라 청년 교육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에 의해 변화합니다. 올바른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감사해 하며 나라의 소중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일치단결된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나라사랑의 힘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선진조국 대한민국을 이루는 강력한 기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젊은 피가 흐르는 청소년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만이 채울 수 있는 각자의 몫을 준비해둔 채 발전의 수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다운 자세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지표가 되는 나라사랑의 길을 걸으며 선열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참사랑의 실천가가 되기 바랍니다. 나라사랑의 길을 실천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으로 선제보훈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뜨거운 노래로 새겨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시여!

그대들의 거룩한 분노와 정열은 역사의 물결 위에 영원히 흐를 것이며,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뜨거운 노래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전라남도교육감〉

의료 칼럼

생산적인 복지 정책

허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대의 정치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동안 우리는 광복 이후 수많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 및 선량들을 뽑아 국가를 발전시키고 복지 민주국가를 만드는데 진력해 왔다.

올해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어 작년부터 선거 열풍에 휩싸여 있다. 과거 자유당 정권, 군사 및 유신 정권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권재민의 꽃인 선거가 국가를 경영하는 중심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발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볼 때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 어떠한 정책이던지 한 번 잘못 결정되면, 그것을 변경 또는 수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 피해는 우리들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할 때는 수많은 논의와 여러 의견을 들어 가능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이미 부작용을 일으키는 정책들에 대해 반면교사를 삼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복지 분야가 그렇다.

50·60년대 6·25전란과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대를 지나오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수입수출 1조 달러의 세계 10대 무역대국,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방법과 방향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실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복지정책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무조건 선거를 의식해 나누어주는 무상복지의 정책방향은 대단히 위험스럽다. 1930년대 부국 아르젠틴이 페론의 무상복지정책으로 인해 현재 나라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눈 여겨 보자.

최근에 유럽발 금융위기를 몰고 오고 주식시장을 매일 흔들고 있는 남부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예를 보고 있으면서도 선거만을 의식해 무상복지 시리즈를 남발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10, 20년 후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기 한량이 없다.

그리스도 30년 전 만해도 2만 달러가 넘는 복지국가이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정권들의 속칭 포플리즘에 영합한 무상복지정책으로 인해 하루하루 구제금융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국민의 40% 이상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자고나면 우리나라를 복지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복지재정 지출의 증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시대에 앞뒤를 가늠하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만 5세 이하 무상보육료,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액 등록금, 취업 전 취업수당, 사병 월급 신설, 노령수당 대폭 인상 등 수많은 검증되지 않는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천문학적인 재정수요를 유발시키는 복지 만능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스웨덴, 독일 등 복지 선진국에서 행하고 있는 일 하는 복지, 생산적인 복지 등을 통해 무상복지로 인한 국민의 도덕적인 해이를 막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인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점을 배워야 한다.

이제는 국민이 자신에게 편하고 유리한 것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는 지를 지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에덴병원장〉

로드킬 방지 대책, 도로건설 기본설계에 넣어야

길거리를 가다가 동물의 사체를 보고 끔찍해서 고개를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도든 고속도로든지 간에 계절과 동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많은 야생 짐승들이 차에 치여서 끔찍하게 죽어있다.

아무리 조심해도 전국의 어느 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에 목숨을 빼앗기는 야생동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로드킬'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차바퀴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간다는 점이다. 덩치 큰 포유류부터 손바닥 만한 새까지 그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육식 동물이나 포식자 동물은 활동권이 넓어야 그 안에 있는 1, 2차 생산자를 먹고 살게 된다. 그것이 생태계 순환법칙의 기본 사이클이다. 하지만 로드킬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생태계가 깨지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도로가 여기저기서 건설되고 있다. 기존의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외에 중앙선, 서해안선 등에서 로드킬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고속도로와 지방국도를 만들 때는 도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로드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 울타리나 야생동물 탈출 유도시설을 기본 설계로 넣어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에서 산악지형 등을 고려해 도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로드킬 방지 대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민경·광주시 동구 대의동

사설

공보의 급감 농촌 의료공백 대책은 없는가

전남지역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공중보건의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보건의료 마지막 보루였다는 점에서 인력급감은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더군다나 뾰족한 해결 방안마저 없는 현실은 의료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올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전국 1253명으로, 오는 4월 복무기간이 끝나는 인원이 1738명인 점을 감안하면 485명이 부족하다. 전남지역 공보의 근무자는 현재 709명으로, 올 전역자와 타지 전출자를 포함하면 303명이 새로 채워져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 감소 추세로 새로 배정받거나 타지에서 전입해 오는 공보의를 합하더라도 70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전망이다.

이런 공보의 급감은 일반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병역미필자 감소와 의과대의 여학생 증가 때문이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할 재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셈이다.

농어촌의 의료공백은 심각하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어촌은 의료수요가 많아 응급 대처 전문인력과 시설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수지상 농어촌에 병원 오픈을 꺼리는 관계로 병원급 의료시설 하나 없는 게 우리 농어촌의 현실이다.

그나마 공보의들이 농어촌 진료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전남의 경우 전국 5천여명의 공보의 가운데 709명, 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 의료인력 중 공보의 의존비율도 20%나 될 정도로 높다.

따라서 이들의 감소를 단순히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다. 도서벽지에 대한 최우선 배치는 물론이고 취약지 순회진료, 방문 간호사업 강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공보의에 의존해왔던 도서벽지 의료체계의 획기적인 대안 마련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고속도 터널에 '피난 통로' 잠겨있다니

고속국도 터널에서 차량 화재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운전자와 승객들은 피난 통로인 연락갱문을 통해 대비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연락갱문이 항시 열려 있고, 방재설비가 제대로 갖춰지거나 작용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호남지역 고속국도 터널 방재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광주 호남대터널의 경우 5개의 차량 피난통로인 연락갱문 중 1곳이 고장 나 있으며, 장성2터널과 3터널에는 모두 5곳의 갱문이 열 수 없는 상태로 잠겨 있었다니 말이다.

연락갱문은 사람이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문을 연 뒤에는 20~70초 이내에 자동 폐쇄돼야 하는데도 열리거나 잠기지 않으니 대형사고가 났다면 다수의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또 구례오수1터널에는 라디오 방송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등 1·2종 터널 12곳에서 33개의 방재설비가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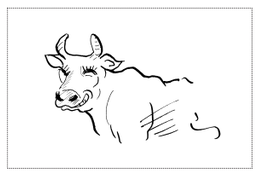
도로 훼손과 운전 저해의 주범인 과적차량 역시 단속이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고속국도 '과적차량 적발 대장'을 분석한 결과 1차 검측에서 중량이 초과한 과적차량이 2차 검측에서는 이 중 82.4%가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측에 대한 축소조작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얘기다.

고속국도의 전반을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이 정도이라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방재시설 일상 점검과 보수 유지·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데서야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더 이상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속국도, 그것도 터널에서의 재해방지시설 관리 부실은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공사 측에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적 차원에 그쳐서는 더 큰 화를 키울 수 있다. 물리력으로라도 안전불감증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소가 웃을 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면서 "자료 삭제에 대한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다. 내게 모든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혔다.

또 마치 대국민을 상대로 호통치듯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도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적이 묘연하던 그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터진지 21개월만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야당을 비난한 것을 보면 회견의 목적이 진실에 대한 양심선언보다 사태 확산 방지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전면 부정하고 돈의 출처도 밝히지 않아 '도마뱀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꼬리자르기'란 동물이 적에게 부속지(동물의 몸통에 가지처럼 붙어 있는 기관이나 부분)나 꼬리 등의 체부를 붙잡히거나 또는 파괴당하는 강한 자극을 받을 때 스스로 해당 체부를 절단하고 포기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전 비서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장진수 전 주무관 측에서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반응이다. '소가 웃을 일'이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한 소가 듣고도 웃을 만큼 어처구니 없음을 이른다.

사건이 터지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몸통이라고 털어놓는 것 자체부터가 '윗선' 개입 의혹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입막음 용으로 거액을 쏟아부은 것은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불법사찰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이 전 비서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몸통이라고 해서 그 윗선이 없을 것으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인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